

2022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포럼 문화정책 환경변화와 지역의 대응

2022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포럼

문화정책 환경변화와 지역의 대응

 성남문화재단

2022. 12. 7.(수) 13:40~17:00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홀

 성남문화재단

2022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포럼

문화정책 환경변화와 지역의 대응



2022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포럼

문화정책 환경변화와 지역의 대응

PROGRAM

발제 : 성남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세션 1> 지역과 문화정책	토론	강원재	○○은대학교 제1연구소장
		곽윤부	서현문화의집(서현생활문화센터) 관장
		이헌찬	문화공간+ 총괄 기획자
발제 : 성남미디어센터 10년 회고와 전망		박지훈	성남미디어센터 센터장
<세션 2> 지역과 미디어	토론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정책이사
		변해원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
		정선옥	성남FM 부장,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위원
		김숙현	성남마을미디어 활동가
발제 : 성남시 지역문화예술생태계와 문화예술교육가의 역할		윤용훈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STAN:D) 대표
<세션 3> 지역과 예술가	토론	김율리아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STAN:D) 사무국장
		박성진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STAN:D) 참여 예술교육가
		서혜윤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STAN:D) 참여 예술교육가

<세션 1>
지역과 문화정책

성남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성남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2022.12.07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정부 정책 및 계획

법 및 계획

중앙정부, 법·정책 및 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표방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비전 2030’, ‘새 예술정책(2018-2022)’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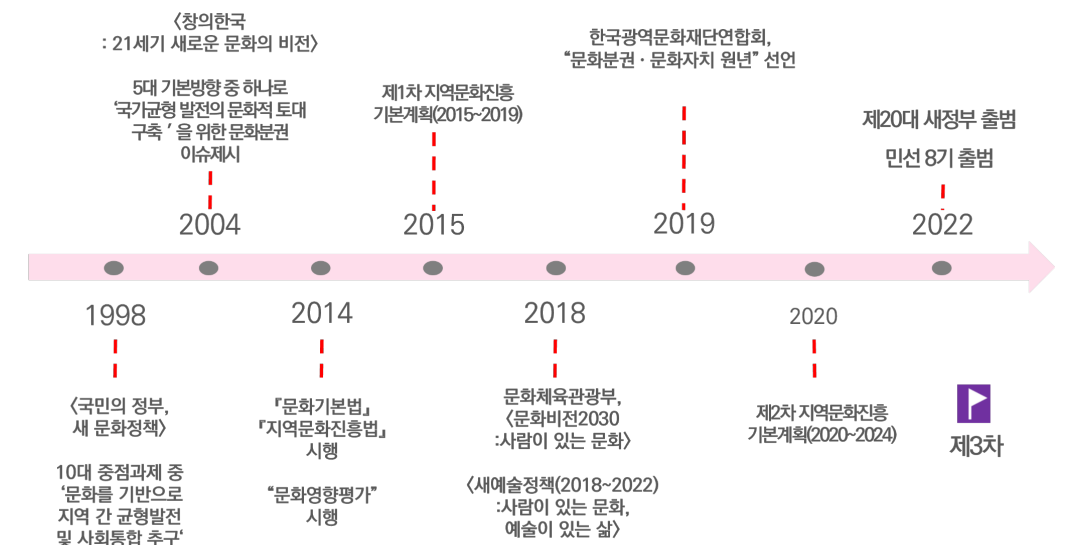
문화도시 사업

문화도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매개이자 수단

- 법정문화도시, 2022년 현재 18곳 지정
- 법정문화도시, 문화자치 관련하여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지자체), 유관기관, 시민의 수평적 관계 구축과 재정 민주주의 등 추진

1. 국가 문화정책 흐름

지역문화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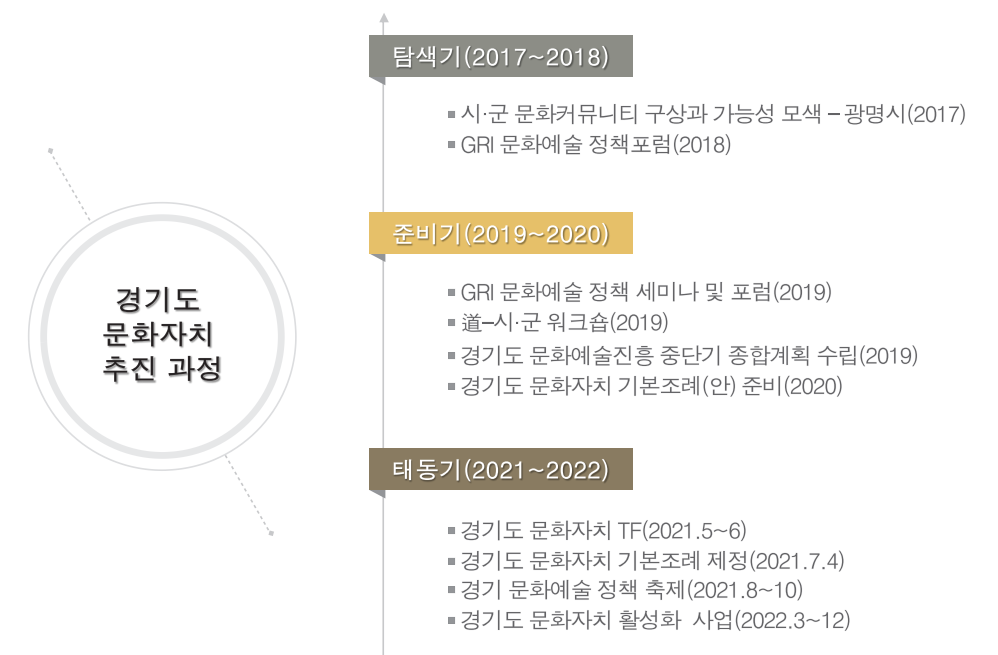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2022.5.3)

- ◆ 비전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 6대 국정목표, 20개 약속, 110대 과제
- ◆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및 민선8기 정책방향

과제명	주요내용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문화기본권 보장 -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전통문화산업 육성 한국어 확산 - 지역문화 균형발전(문화자치)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 장애예술 활성화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 K-콘텐츠 기반조성 - K-콘텐츠 세계화 - K-콘텐츠 초격차장르 육성 - K-콘텐츠로 신시장 주도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미디어 교육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 미디어 접근권 -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국가유산 체제 도입 - 문화재 규제 개선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과정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2021. 7.14)

- ◆ 경기도 문화정책 기본원칙 반영
 -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마련, 문화격차 해소 등 포함
- ◆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수립,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같음
 - 시군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특성화 등
- ◆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서 기능 수행
 - 문화자치 기본계획 등 道 문화정책 관련 주요사항 심의
- ◆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 다양한 문화주체의 정책참여보장, 협의체 제안내용의 적극적 정책 반영

경기도 민선8기 정책방향

자료: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2022. 3월~12월)

- 사업 기간: 2022.3월 ~ 12월
- 사업비: 800백만원(도비 400백만원, 시군비 400백만원)
- 선정 규모: 4~8개소 내외 총 800백만원
 - 1개 시군별 최소 50백만원 ~ 최대 200백만원 지원
- 공모대상: 31개 시군, 해당 지역 기반 지역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주민
- 지원 내용
 -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문화자치 조례 제정, 문화자치 협력네트워크 운영 등
 - 문화자치 역량제고: 문화자치 활동 매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문화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문화자치 활성화: 문화자치 활성화 자율형 기획사업

[자료: “도,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자치 본격 추진, 활성화 사업 시군 공모”, 경기도 보도자료(22.2.7)]

경기도가 5대 기회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5대 기회 패키지란, '기회수도'를 만들겠다는 민선8기 경기도정 비전을 위한 실행 약속입니다. 자료: 경기도홈페이지

- 기회사다리**: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도약을 돕는 기회사다리
 -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경기도의 지원책
 -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430만 베이비부머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 기회소득**: 사회적 기여에 정당한 보상을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정당한 소득보전을 통해 가치창출을 지속하게 하고 전문화, 직업화의 기회 제공
 - 예술인 기회소득 및 장애인 기회소득 등
- 기회안전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총출력 사회안전망
 -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시급
 -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일자리 지원, 자립, 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원
- 기회발전소**: 혁신성장과 미래산업 선도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AI, 빅데이터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RE100 선도로 기후 위기 대응과 수출경쟁력 제고, G-핀드 조성으로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 K-콘텐츠 산업 육성, 경기북부를 성장의 허브로 발전
- 기회터전**: 사회적 가치의 확산, 품격있고 즐거운 도민의 삶
 - 옛 경기도청 부지(수원시 팔달구 소재)에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 소셜벤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ESG 등 사회적 가치 확산
 - 문화와 예술, 체육과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삶에 품격과 즐거움을 더함

경기도 민선8기 5대 공약 중 문화예술 관련 공약

자료: 경기도홈페이지

◆ 공약순위4.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노동자, 농민 · 어민, 중소벤처 · 소상공인, 문화예술인과 반려가족, 환경까지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문화예술>>

-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 '1인 1예술교육 바우처' 시행 및 '경기청년문화쿠폰' 지급

◆ 공약순위5.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목표]. 권역별 교통, 일자리, 산업 등 핵심시설 유치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경기북부지역발전>>

- 자연, 문화관광지 및 관광특구 개발

<<경기동부지역발전>>

-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역사공원 건립으로 삶의 질 개선

<<경기북부지역발전>>

- 자연, 문화관광지 및 관광특구 개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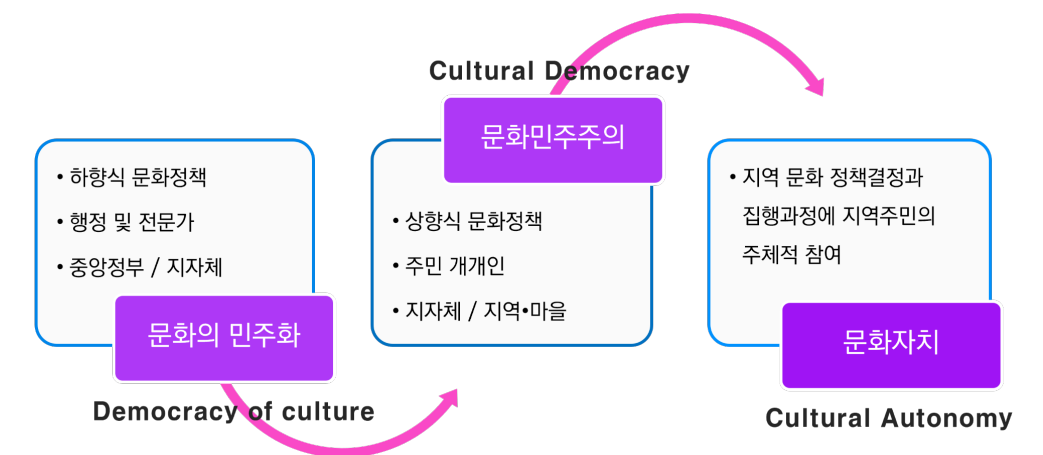
문화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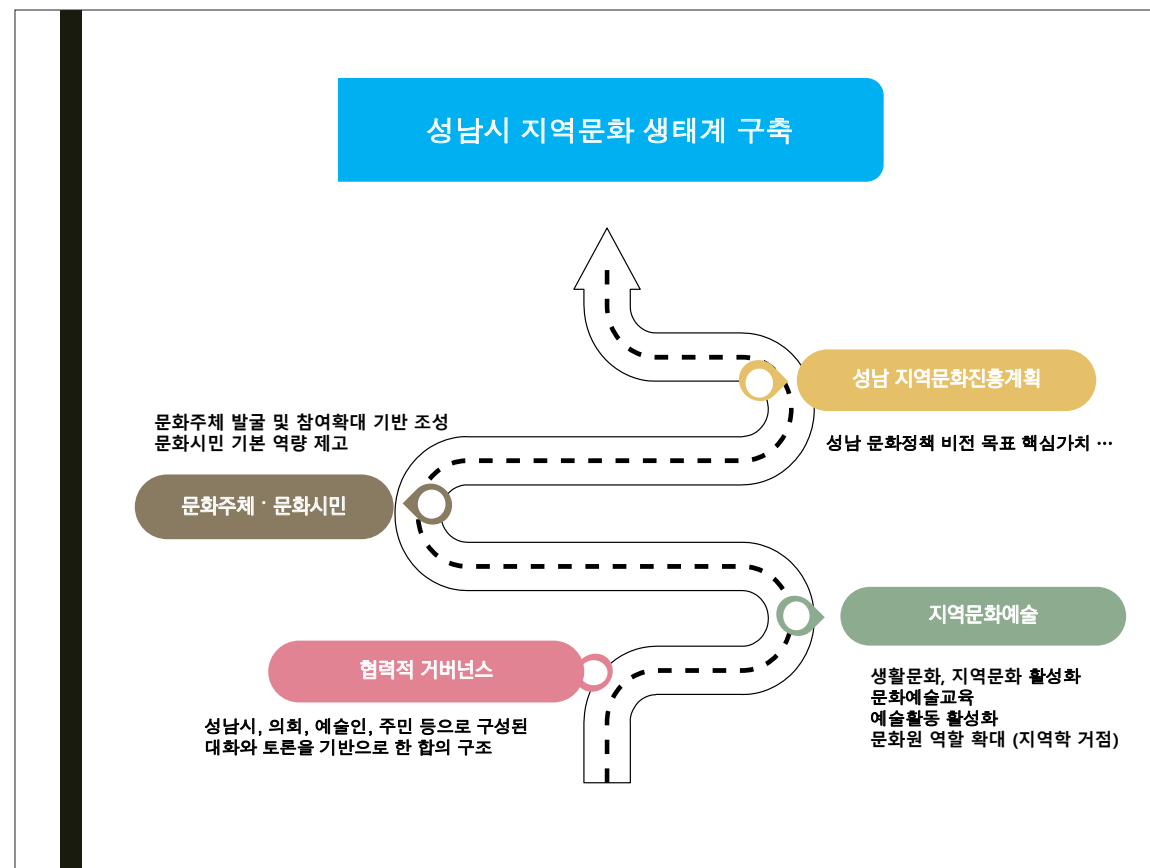
문화자치

- ✓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
- ✓ 지역문화 주체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 ✓ 지역문화 주체간 협치와 거버넌스 활성화
- ✓ 수평적 협력 구조 구축

3. 성남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문화민주주의의 실천





감사합니다

지역문화주체가 바라보는 성남문화정책 방향

I. 예술에서 비롯되는 (전문)예술정책

- 예술가 작품세계 공감
- 지속적 전시 가능 구조 체계화
- '노동-창작-공유-유통'의 예술 생태계 구축 등

II. 현장에서 비롯되는 지역문화활성화 정책

- 서류, 정산 중심의 지원사업 구조 탈피
- 현장의 변화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지원사업 확대
- 지역문화주체가 기획하고 실천하는 지역문화활성화 정책 추진 등

III. 지역 문화자원 연계·협력 방안 모색

- 지역 내 다양한 공간 및 문화주체 등 연계·협력
- (예) 성남생활문화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
: 성남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 성남작은도서관연합회, 사랑방문화클럽 등

<지역과 문화정책> 토론 1

곽윤부 서현문화의집(서현생활문화센터) 관장

지역문화 주체가 바라보는 성남문화정책 방향

■ 현장에서 비롯되는 지역문화활성화 정책 지원 방향 발전적 전환 필요

- 꼬리표가 붙은 지원사업(공급자 중심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담을 수 있는 열려있는 지원사업으로의 변화 필요
- 민간 생활문화 공간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경우, 공공의 지원이 필요
 - 생활문화는 이제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에만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야 함
 - 생활예술동호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생활문화 활동의 다양성에 주목해야 함
 - 생활문화는 문화예술, 문화기술, 문화적 관계의 확장하는 활동으로 재정의 필요

참고사례

“인천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사업 공모”

서점에 앉아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고,
LP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며 재즈의 역사를 배우고,
카페에서 원두를 로스팅해 바리스타와 이야기 나누고,
감독을 초대해 독립영화를 함께 보고,
텃밭에서 키운 작물들로 빵이나 쿠키를 굽고,
내 이야기로 한 권뿐인 출판물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동네 풍경을 찍으러 다니기도 하고,
버려진 가구들을 리폼 해보고,
그림과 사진으로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가보지 않은 나라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기타를 치고,
가사를 써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직접 만든 댄스북을 입고 춤을 추고...

이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다양한 문화공간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 성남에는 마을 단위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이 존재하고, 그 소규모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공공 지원 필요함
 - 이러한 공간에는 일상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활동은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지속가능성에 문제 직면
 - 공간에 대한 지원은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증진 시킬 수 있고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이러한 소규모 생활문화 공간 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생활문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됨
 - 성남시, 문화재단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공 차원의 문화정책 지원사업 담당 기관은 작은 생활공간의 활동에 주목하고, 정책차원 지원을 고려해야 할 필요 있음

■ 지역 자생적 생활문화 자원 간 연계와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문화활동가 그룹을 발굴/성장하기 위한 느슨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에 대한 관심 필요
- 성남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는 생활문화 네트워크 존재
 -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성도협) ⇔ 도서관사업소
 -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 성남문화재단
 - 성남시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 '성남마을넷' ⇔ 자치행정과
- 각 네트워크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고, 지역사회 특성상 활동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담당 부서(지원 기관)가 다름으로 인해 상호 연결되지 못함
 - 이러한 상황은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 참여 활동가들은 최소 2~3개 많으면 10개 이상의 지원 기관과의 행정 업무로 진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
 - 2~3년의 활발한 활동 후 관성적 활동 하거나, 자발적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많음

- ▶ 성남의 경우, 공통적인 사업 영역에 서로 협력하기 위한 자발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음

- ▶ 민간 생활문화공간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공유 협력하는 자발적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 활동 시작 중

- ▶ 현재 중앙-경기도의 사업 지원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으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성남시의 정책 차원의 결합과 지원의 필요

- 민간 네트워크에 공공의 협력에 전제되는 과제
 - 민간 네트워크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공공 지원 영역과 자율 영역의 구분
 - 공공이 지원할 경우, 민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입 정도에 대한 논의

- ▶ 자발적 민간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하고 공공 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

〈지역과 문화정책〉 토론 2

이헌찬 문화공간+ 총괄기획자

지역문화 주체가 바라보는 성남문화정책 방향

성남문화재단 운영 목표를 보면

문화와 예술로 연결된 창의 사회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5가지 추진 방향과 15대 과제가 구성되어 있음
15대 과제 중. 문화가 숨쉬는 환경조성, 생활문화사업 다양화. 계층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이 성남 생활 문화공간에서 추진 중이다.

성남 생활문화공간은 성남시 3개구에 14개소가 고르게 분포 중이며, 각 공간마다 2명의 공간 운영 기획자와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문화기획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일상 속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기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문화의 자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매개자 간의 이해 및 교육 필요

성남생활문화공간은 각 공간의 공간 운영기획자들 공간의 주체가 되어 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단은 이를 위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다.
공공기관과 현장의 기획자들 간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현장의 기획자 간의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기획자, 기획자와 시민,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서로의 이해를 위한 워크숍 또는 각 주체를 알아가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워크숍 등 상호 교육을 통해 매개자(행정기관, 기획자) 간의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수혜자(시민)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찾아가는 예술가 발굴 및 육성

기획자 선정, 지원사업 등 모집 형태와 방식이 다양하고 새로운 예술가 발굴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모 중심의 사업 진행의 영향이다. 공모 중심 사업은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지만, 예술 영역은 공평도 중요하지만, 새롭고 다양한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획자 또는 예술가의 활동 지원의 기획 및 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와 예술가의 발굴하여 인력풀을 운영하고, 사업의 형태에 맞는 기획자 또는 예술가를 발굴하여 목적에 맞는 운영방안 필요하다.
기획자 또는 예술가의 운영에 있어서는 팔길이 원칙(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음) 기본으로 하되, 기획자 또는 예술가 역시 행정기관의 원칙과 기본은 지켜야 한다.

셋째. 예술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예술가 또는 기획자에게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은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주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남에서 예술하기 좋은 제도 및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중앙 및 경기도, 성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공모전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는 중장기적 활동 계획 세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기의 성장과 건강한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와 기획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할 수 있는 지속적 공론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세션 2>
지역과 미디어

성남미디어센터 10년 회고와 전망

박지훈
성남미디어센터 센터장

■ 성남미디어센터 10년 회고와 평가

1. 미디어센터의 개념 및 역할

(1) 미디어센터의 개념

- 공간개념 : 공공문화시설
- 행위개념 : 지역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장

(2) 미디어센터의 필요성

-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미디어 중심 공공 문화기반시설 확장
- 미디어 매개 지역 생활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역 문화 복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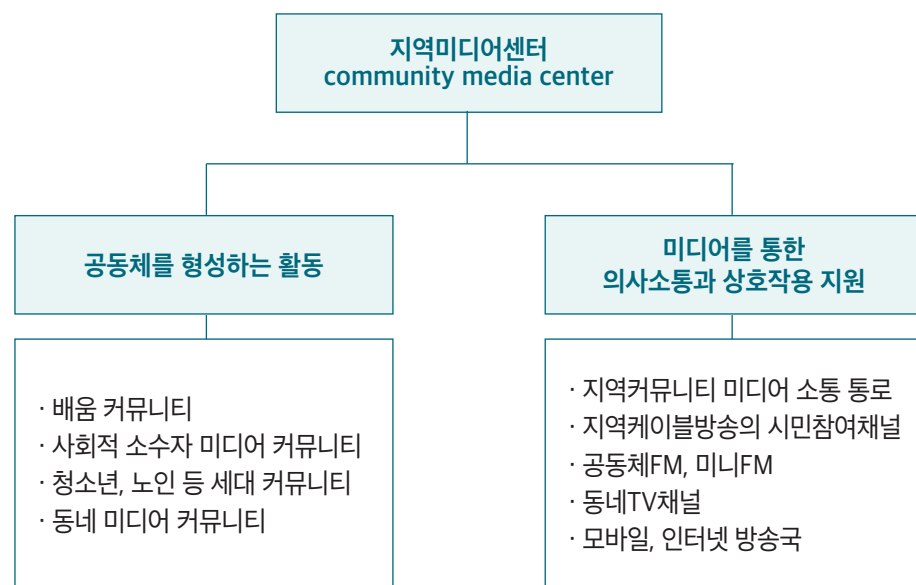
(3) 미디어센터의 지향 가치

: 공공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역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확대,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미디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공공성
 - 매체적 관점 : 공공재로서 미디어
 - 공동체적 관점 : 공론장
- 커뮤니케이션 권리
 - 미디어 접근권 : 표현의 자유, 퍼블릭 액세스권
 - 미디어 민주주의 : 미디어 다양성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4) 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매개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과 시민의 의사소통과 상호교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함



(5) 미디어센터의 역할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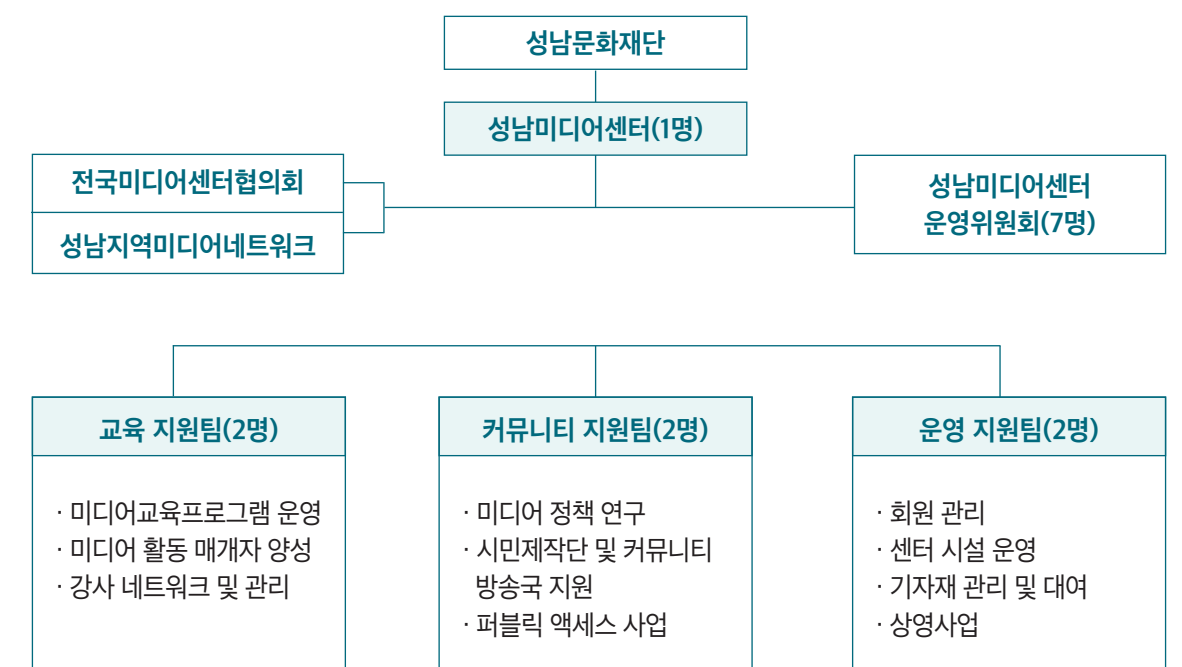
- 설립 주체, 지역적 특성, 인적 구성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
 -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퍼블릭 액세스 실현을 위한 미디어 제작 지원
 - 미디어 문화 향유를 위한 체험 활동
 - 지역 및 전국 차원의 시민미디어 네트워크 구성
- 연계 기관에 따른 미디어센터 역할과 기능
 - 지역 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운영 주체로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문체부 연계
 - 시청자 방송 참여 확대 사업지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연계

2. 성남미디어센터 개요

(1) 현황

명칭	성남미디어센터(Seongnam Media Center)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757번지)
면적	총면적 : 1,411㎡(427평) 미디어홀(상영관) : 252㎡(76평) / 교육실 및 스튜디오 등(1,159㎡(351평))
설립주체(예산)	성남시(7억 원), 문화체육관광부(10억 원), 경기도(3억 원)
운영주체	성남문화재단
준공일	2012. 12. 07. (개관일 2012. 12. 27.)

(2) 조직 운영 체계



3. 성남미디어센터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 '미디어로 만드는 동네, 동네를 바꾸는 미디어'

(2) 목표

- 시민 누구나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는 성남
 - 다양한 계층의 미디어 활동 지원과 미디어 소외계층의 접근성 확대
 - 아동, 청소년, 직장인, 여성, 노인, 장애인 누구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성남 어디서나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동네
 - 동네 라디오방송국, 마을신문, 시장 인터넷방송국 등 동네마다 미디어 거점 마련과 영상 및 라디오 지역 채널 확보, 운영
 - 시민 주체의 동네방송국 활성화와 시민참여 방송 채널 운영을 통한 시민 소통 공간 확장
- 커뮤니티 미디어 활성화
 - 공공 미디어 활용 전문인력 양성
 - 회사, 동호회, 전문인, 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미디어를 매체로 하는 시민제작단 등 시민 주체가 커뮤니티 미디어 활성화
- 미디어를 통한 창조도시 네트워크 구축
 -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 기관 단체별 네트워크, 지역 방송국(케이블TV, 성남FM 등) 네트워크, 마을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창조하며, 누릴 수 있는 미디어 활동 기반 조성

4. 성남미디어센터의 기본방향과 핵심 사업

(1) 기본 방향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미디어 활성화
- 미디어 학습,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동네로부터 시작하는 미디어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커뮤니티 실현
-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누구나 배우고, 창조하며, 누릴 수 있는 미디어

(2) 핵심 사업

미디어 문화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제작 장비 대여 · 체험스튜디오, 미디어 갤러리, 미디어 도서관 · 공동체 상영 및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영회 · 독립영화, 예술영화 상영회, 야외 상영회 및 시민영화제 추진 · 정회원 현물 제작 지원
미디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 · 커뮤니티 구성 및 강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 · 매체별, 수준별 교육 (초중급 기술교육, 전문가 과정) · 단체와 모임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커뮤니티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미디어 정책 개발 ·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동네방송국 · 시민제작단 운영 및 미디어 동아리 활동지원 · 커뮤니티 지원 '자원 활동' 및 미디어를 통한 '나눔 활동'
퍼블릭 액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채널 구축 · 시민참여 프로그램 홍보 · 지역방송 네트워크 (TBS, OBS, 분당FM 등)
미디어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 · 지역 독립영화 제작자 육성을 위한 독립영화 제작 지원 · 커뮤니티 미디어 매개자 및 리더 양성
미디어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 미디어 정책 및 사업 협력을 위한 기관, 단체, 방송사 네트워크 · 지역 내 커뮤니티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 전국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및 연계(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

5. 성남미디어센터 연혁

2022	12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작 시사회(12.14.~12.16.) : 장편 <세이레> 외 1편 / 단편 <젓꼭지 3차 대전> 외 2편
	11	시민라디오제작단 <성남의 역사인물> 제4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 최우수상 수상 : 라디오시민제작단 <라울림> ‘모란민속5일장 상인들의 이야기...’ <소행성> ‘해외입양인 메리언니부부의 성남방문기’
	10	2022 성남다-시영화제 개최(10.02~10.03.) 어린이영화아카데미 수료식 및 시사회(10.15.) : 수료(9명)/시사(단편 <A+>, <라면 먹는 날>)
	9	제8회 경기스쿨필름페스티벌(GFSF) 공동개최(09.30.~10.02.)
	8	한 여름밤 야외상영(08.27.) : <중경삼림> 상영과 영화음악 공연 성남미디어센터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08.31) : ZEP 스페이스
	6	패밀리영화관 야외상영(06.10.) : <돌아온 검정 고무신> 상영 및 이벤트 행사
	4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 장편 <언니 유정>, <딸에 대하여> / 단편(일반) <바다 보러 가자> 외 5편, 단편(성남) <순심이 가장 사랑한 사람>, <마술피아노>
2021	12	다목적스튜디오 조명 리뉴얼
	11	시민라디오제작단 <성남의 역사인물> 제3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 대상 수상 라디오제작단 <소행성> 우수활동팀, 영상제작단 <영화로 보는 광주대단지> 최우수상
	10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작 시사회(10.19.~10.22.)
	06	지역미디어센터 유통지원사업-TBS 우리동네라디오방송 참여(6~12월) 상영사업 재개(코로나19로 2020년 사업 중단)
	04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 장편 <너를 줘다>, <사랑의 고고학>, <세이레> / 단편 <정서, 정서> 외 2편
2020	12	시민라디오제작단 <살롱 드 성남> 제2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 우수상(콘텐츠) 수상 마을미디어 BBCREAM <우리동네 축구팀> 최우수상(콘텐츠) 수상
	10	릴레이무비 시범사업-인터랙티브 릴레이 무비, 교육토크쇼, 메이킹필름 제작 시민영상제작단 <태평동 사람들> 제13회 서울노인영화제 대상 수상
	08	스튜디오 및 편집실 리모델링, 온라인 방송시스템 구축 : 벽면 크로마키 설치, 스튜디오 라이브방송 시스템, 1인 방송시스템 구축 지역미디어센터 유통지원사업-TBS 우리동네라디오방송 참여(8~12월)
	05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경기콘텐츠진흥원) : 미디어센터 활동강사 18명, 온라인 강좌(79개 콘텐츠) 제작지원
	04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197편 접수, 4편 선정) : 장편 <아이>, <The Boxer 김예준> / 단편 <젓꼬지 3차 대전>, <모서리>

2020	03	코로나19로 미디어센터 휴관(3~9월), 대관 중지
	02	미디어센터 교육용 컴퓨터 교체
2019	11	시민제작단 <태평동 사람들> 경기마을미디어축제 콘텐츠 부문 대상
	10	3.1운동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아리 캔 스피크> 야외영화 상영
	08	3.1운동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항거:유관순 이야기> 외 2편 야외영화 상영
	06	경수고속도로 후원 : 소리스튜디오 디지털 콘솔 교체
	04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 장편 <담쟁이>, <두 도시 이야기> / 단편 <메리 크리스마스>, <잊혀진 사람들>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지원사업 업무협약(경기콘텐츠진흥원-성남문화재단)
	02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작 <벌새>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대상 수상
2018	12	성남미디어센터 정책포럼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발전방안 모색’ 개최
	10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작 <벌새>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넥팩상, KNN 관객상 수상 실버영상제작단 <아버지와 아버지> 제11회 서울노인영화제 노인섹션 대상 수상 제6회 성남미디어페스티벌 개최(10.10~10.17), 공모전 시상식(10.13) 성남 사는 영화제(10.10./11./17.) 개최 : 강유가람 감독전 외
	04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 장편 <나나 내나>, <눈물이 방울방울> / 단편 <여름비>, <흔한 이름> 외 1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린이 유부버! 나야 나!> 공모 선정 성남미디어센터 드론촬영동호회 1기 모집, 활동 개시
	01	제작지원작 <살아남은 아이>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센션 초청 미디어센터 신규장비 : 4K 캠코더 PXW-Z150, 오즈모 플러스, 교육용 노트북/아이패드
	01	제작지원작 <살아남은 아이>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센션 초청
2017	11	성남미디어센터 5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개최
	10	제작지원작 <살아남은 아이>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국제평론가협회상 수상 제5회 성남미디어페스티벌 개최(10.18.~10.25.), 공모전 시상식(10.20.) 개최 성남사는 영화제(10.18, 10.25.) 개최
	08	DMZ Docs 시니어관객단 시범사업 운영
	06	새정부 국민정책제안 국민마이크 in 성남 진행
	04	성남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 장편<살아남은 아이>, <테우리> / 단편 <죽음의 무도회>, <선화의 근황> 외 1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나는야 미디어 동화탐정> 공모 선정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기본과정, 심화과정 운영(4~9월)
	01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운영 업무협약(경기콘텐츠진흥원-성남문화재단) 미디어센터 신규 장비 : 드론 2종(팬텀4 프로, 매빅 프로)

2016	12	경기센터-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공동, <지역미디어센터 사회적 효과 지표 개발을 위한 포럼> 개최 시민영상제작단 <탄천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국영상문화제전 영상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11	성남형교육연계 고3수험생 대상 인문학적 상상여행 「Book+快樂(쾌.락)」 운영 (관내 7개 학교, 11개 프로그램) 제작지원작 <파란입이 달린 얼굴> 제17회 장애인 영화제 대상 수상
2016	10	제4회 성남미디어페스티벌 개최(10.18.~10.26.), 공모전 시상식(10.21.) 제작지원작 <컴, 투게더>, <달인>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04	2015년 성남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시사회
	03	성남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 장편<벌새>, <히치하이크> 외 1편 / 단편 <능력 소녀>, <복덕방> 외 1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내가 만드는 예술장난감, 오! 마이 토이> 공모 선정
	02	미디어센터 신규장비 : 야외모니터, 영상 무선 송수신기, 스튜디오 조명장비 PARA SET
2015	12	성남문화예술교육 포럼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출발점에 서서> 개최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파란입이 달린 얼굴> 제41회 서울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 수상
	10	제3회 성남미디어페스티벌 개최(10.14.~10.17.), 공모전 시상식(10.16.) 실버영상제작단 <결혼 말고 사랑> 제8회 서울노인영화제 노인섹션 우수상 수상
	09	시민라디오제작단의 <찾아가는 라디오> 개시
	04	성남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 장편<컴, 투게더> <소은이의 무릎>, 단편<달인> 외 1편 2014년 성남독립영화 제작지원작 시사회 진행
	03	꿈다락 토요미디어문화학교 <Play! 오토마타&미디어아트 외 1> 공모 선정 노인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도전 노인영화제 외 1> 공모 선정
	02	미디어센터 신규장비 : 스테디 짐벌, 액션캠코더, 스튜디오 조명 장비 SET
2014	10	제2회 성남미디어페스티벌 개최(10.21.~10.25.), 공모전 시상식(10.25.)
	08	야외상영 패밀리영화관 사업 개시
	06	정회원 현물제작 지원사업 개시
	05	노인영상미디어활동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 : 실버영상제작단 활동지원
	04	성남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 개시, 지원작 선정 : 장편<파란입이 달린 얼굴> / 단편<아무도 살지 않는 집> 외 1편 시민제작단 영상콘텐츠 「아름방송 시청자열린세상」 편성
	0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빛과 소리로 만드는 미디어아트 외 2> 공모 선정
2014	01	미디어센터 장비 업그레이드 : 슬라이드캠, 스테디캠, DSLR 그립장비 등
2013	11	노인대상 고전영화 상영회 「청춘시네마」 개시

2013	10	제1회 성남미디어페스티벌(10.18.~10.19.), 공모전 시상식(10.19.)
	09	시민라디오제작단 W.S.N.B 원더풀성남 방송 개시 한국영상자료원 후원 야외상영회 개시
	06	경기도 다양성 영화관 <G시네마> 개시
	04	노인영상미디어활동 활성화사업 <인생백서 옴니버스> 공모 선정
	03	꿈다락 토요미디어문화학교 <청소년이 만드는 문화예술 웹진 외 1> 공모 선정
	01~02	개관기념 특강, 개관기념 강좌 개설
	01	제1회 정회원 교육 및 시설 장비 운영 개시 영화 읽기 모임 구성, 활동 개시
2012	12.27	성남미디어센터 개관
	12.07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구축 공사 준공
	09~11	미디어교육 시범사업(강사풀, 공동체교육, 협력교육 등) 커뮤니티 시범사업(시민제작단, 마을미디어, 찾아가는 영화관 등) 상영 시범사업(독립예술영화관, 담장 없는 영화관 등)
	08	1기 시민제작단, 대학생기자단 모집, 활동 개시
	07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구축 공사 착공
	05~09	노인미디어교실 <청춘 콜라주> 사업 진행
2011	04~06	예술인과 함께하는 영화 문화읽기 진행
	12	센터 시설·장비 구축 공사 입찰 공고 및 심사, 업체 선정
	09	미디어센터 건립추진 대화모임 개최(2회)
	07~08	전국 미디어센터 현장 조사 및 지역 수요 조사
	03	성남미디어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10	01~02	타 지역 미디어센터 현장 견학 및 담당자 미팅
	12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담당부서 문화사업부 신설 및 예산 수립
	09	성남시 미디어센터 사업 선정
	07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센터 설립사업 신청

※ 특징

- 2010년 담당 부서 및 직원 구성하고, 2012년 12월 개관
: 조직 구성 → 운영 방향성 설정 → 운영계획 및 공간 구성 → 운영
(* 일반적 방식 : 공간 마련 → 리뉴얼 → 사업 벤치마킹 → 운영)

■ 성남미디어센터 사업평가

1. 새로운 변화 시기의 미디어센터

(1) 성남미디어센터 운영

- 2012년 12월에 개관하여 올해로 만 10년을 맞는 성남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쉽게 배우고 활용하도록 교육
- 미디어를 통해 마을 속에서 주민들과 교감하고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목표와 과제를 갖고 운영
- 이를 위해 연 100여 개의 정규강좌, 미디어 저변 확대를 위한 원데이클래스 등의 무료 강좌,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강좌와 어린이 대상으로 미디어스쿨을 운영
- 최근 어린이영화아카데미(SNEFS) 등을 개설하는 등 향후 미디어 브랜드 강좌를 만들어갈 계획
- 또한 관내 학교, 단체 및 시민문화 거점 공간과 연계한 미디어 위탁교육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미디어교육과 활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2) 전환기 미디어센터 교육과 체험

-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부상하여 미디어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117개 온라인 강좌를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미디어센터에 오지 않고도 미디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뉴미디어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유튜브 1인 방송 시스템과 VR, 메타버스 등의 뉴미디어 강의와 체험 시작
- 동시에 ZEP 플랫폼에 성남미디어센터 공간을 구현하여 미디어센터를 가상의 상황에서 체험할 수 있는 준비 시작

(3) 전환기 미디어센터 상영사업

- 독립예술영화관을 중심으로 하는 상영사업은 무료 기획 상영을 포함 연 50여 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야외 상영과 함께 청년영화기획단을 운영, 향후 시민영화제 개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려 함
- 올해로 9년째인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은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며 성남미디어센터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으로 자리매김
-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남지역의 독립영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제작 능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

(4) 전환기 미디어공동체 사업

-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미디어 커뮤니티 사업은 2개의 시민라디오제작단과 8개의 마을미디어 공동체를 지원
- 향후 마을미디어공동체 활동의 자발성 강화를 위해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 협력하고, 공모 지원 방식의 사업을 지양하고 '마을미디어네트워크협의회'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

(5) 현황 정리

- 10년이라는 기간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보유 장비의 상당수가 노후화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공간 활용의 한계가 노출되어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계획 필요

- 주요 장비를 교체하고,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구비 하는 방안 강구
- 향후 AR, VR과 메타버스 등 뉴미디어 환경에 능동적 대비 방안 강구

2. 미디어센터 사업별 현황 및 과제

1) 교육 사업 과제

⇒ 차별화 전략, 교육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수강료와 강사로 조정

(1) 미디어 교육 목적 및 방향의 재설정

- 목적 : 교육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방향
 - 보편적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 기초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 미디어 교육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미디어 심화 과정 교육 확대
 - 미디어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 브랜드 개발(어린이 대상 프로젝트성 창의 교육)

(2) 수강료 인하 : 교육 접근성 강화

- 목적 :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수강료 공급을 통해 미디어 저변 확대
- 장·단점
 - 장점 : 수강생 증대, 폐강률 감소 및 안정적인 강사 운영
 - 단점 : 세입 예산 저조

(3) 강사료 인상 : 양질의 미디어 교육 제공

- 목적 : 미디어 강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우수 인재 확보
- 장·단점
 - 장점 : 안정적인 강사 운영, 우수 강사 확보 수월
 - 단점 : 세출예산 확대 및 강의 수 축소

(4) 미디어센터 정규강좌 재편

- 정규강좌 장르별 개강 현황

구분	합계	영상	라디오	사진	뉴미디어 (메타버스)	기술편집	기타
강좌수	35	14	4	7	3	6	1

- 정규강좌 장르별 개강 현황

구분	합계	영상	라디오	사진	뉴미디어 (메타버스)	기술편집	기타
강좌수	23	8	4	1	2	7	1

-강좌의 개폐 현황의 의미

- 상당수의 강좌가 폐강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초래
- 미디어 교육 및 강사 안정성 저해

: 미디어 강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폐강의 경우 수입과 일정 조정의 피해 발생

⇒ 미디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 초래

⇒ 미디어 교육 운영에 대한 냉철한 평가 후 발전적 재편 필요

(5) 내부 평가 : 2023년도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 교육 프로그램

- 수준 높은 강사진 유지를 통해 양질의 미디어 교육 추진
-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 상반된 두 방향을 적절하게 양립할 수 있게 정밀한 평가 및 운영방안 수립 필요

-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종류	비중	대상	프로그램 예시
보편적 교육	유료	50%	일반 성인	스마트폰, 일러스트, 유튜브, 프리미어, 촬영, 영화, 사진, 브이로그,
	무료	5%	일반성인 및 특수학교 등	스마트폰 촬영/편집, 유튜브 등
심화교육 및 뉴미디어 교육	유료	20%	일반 성인	메타버스, 제페토, AI 등
브랜딩 교육	유료	25%	어린이	어린이영화아카데미, 미디어스쿨 등

- 강사료 조정안

- 2022년 대비 8% 상향 조정을 통해 우수 강사진 유입 및 확보
- 우수 강사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수강료 조정안

- 2022년 대비 25% 내외로 수강료 인하 추진 및 다양한 할인 정책 추진
- 수강료 인하로 정규강좌 폐강률 약 40%(22년)에서 약 30%(23년) 수준으로 낮춰 교육 접근성 강화

2) 마을미디어 사업 과제

⇒ 공모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 커뮤니티 지원 방식 사업 전환(마을미디어네트워크협의회), 지역 협력을 통한 사업진행(유관 기관과 MOU)

(1) 마을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

* 공모지원 → 커뮤니티 지원 방식(마을미디어네트워크협의회 조직)

- 마을미디어 공모 지원 현황(3년)

구 분	단체수	참여인원	콘텐츠제작	소요예산	비고
2019년	8	103	64	14,748천원	
2020년	9	112	72	18,661천원	
2021년	7	60	74	13,989천원	

-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구분	세부 내용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목표 대비 참여단체 수, 참여자 수, 콘텐츠 수 초과 달성 • 다양한 세대, 계층, 성격의 마을미디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여성,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참여 - 제작 프로젝트형 기획 요구 증가 • 비대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각 단체에서 인지하고 플랫폼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체 별 유튜브 활용 구독자 수 및 조회수 증가
부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지역 마을미디어 팀(전문) 동호회 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전문 동호회(단체)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디어 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성남마을 활동단체의 미디어교육 확산 및 활동을 기획해야 함. • 마을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사업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활동이 위축되어 미추진
개선방안/향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 예상 속 활동 대안 마련 • 마을미디어 분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선정팀 미디어교육 지원 - 공모지원 형태를 변경하여 참여형 프로젝트 기획 형태로 전환(재단·단체) • 마을미디어 운영시스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단순화 진행으로 참여단체 독려 및 확대. - 현장 코디네이터 투입(전문가)으로 단체의 마을미디어의 중요성 인지 및 방향 설계 •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성남마을미디어 활동공유회 “우리는 원팀” 진행으로 2022년 성남미디어센터 內 활동팀으로서의 등록 및 단체 관리 영역의 네트워크 진행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마을공동체들이 미디어 매체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흐름 속에 미디어 매체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어, 다양한 미디어 활동영역 확산 • 공동프로젝트(공공콘텐츠 제작) 구현이라는 목적으로 단체의 지속성을 유지 • 미디어자치 실현으로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생산 • 성남미디어센터 로컬커넥팅허브 역할 실현

(2)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 목적
 - 유튜브, OTT, 메타버스 중심의 콘텐츠가 소비·생산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재 양성
 -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콘텐츠를 개발, 지원
- 대상 :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거나 관심 있는 시민
- 주요 내용
 -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 연간 15개 과정
 - * 영상 크리에이터 : 온라인(유튜브), 숏츠, 영화(단편 다큐·극영화)
 - * 뉴미디어 : 메타버스 맵, VR, 미디어파사드
 - 미디어 크리에이터(개인·동아리) 지원 : 연간 50개 콘텐츠 제작 지원
 - *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후속 활동 지원
 - * 공동 프로젝트 지원 / 우수 콘텐츠 공모 지원
 - 지원내용 : 성남미디어센터 시설·장비 대여, 제작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 추진 계획

추진연도	일정	추진계획	비고
2022년	9월~11월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지원 계획 수립	
2023년	연 간	크리에이터 양성(기초) 과정 운영, 크리에이터 지원	
2024년	연 간	크리에이터 양성(기초·심화) 과정 운영, 크리에이터 지원 확대	
2025년 이후	지 속	사업 운영(계속)	

3) 상영사업 사업 과제

⇒ 시민들의 직접 참여 확대

(1) 상영사업

- 목적 : 다양한 영화관람 기회 제공, 독립예술영화 활성화, 성남 관객 커뮤니티 형성
- 방향
 - 프로그래밍을 통한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 상영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는 상영
 - 야외상영을 통한 다양한 공간에서의 관람 기회 제공
 - 독립예술영화관
 - 최신 독립영화 및 과거 영화들과 함께 프로그래밍 진행, GV 진행
 - 시간대 변경을 통한 운영
 - : 둘째, 넷째 낮 운영 / 첫째 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운영
 - 매월 1회 청년영화기획단 프로그래밍과 GV 진행

(2) 상영사업(무료 상영)의 다각화

- 큐브영화관 진행
 - 영화 읽기 모임 중심으로 무료 상영회 진행
 - 반기별 1회, 목요일 저녁 상영
- 학교 대상 상영회 진행
 - 특수학급 및 일반학생 대상 상영회 진행
 - 월 1회 월요일 진행
- 야외 상영
 - 청년영화기획단과 기획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관람 기회 제공
 - 초여름과 늦여름 각 2회 상영(총 4회)
- 다시영화제
 - 청년영화기획단과 공동 기획하는 시민영화제
 - 5~6월 중 진행, 탄천 일원 다리 아래 공간

(3) 독립영화 제작 지원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성남시 촬영 분량이 전체 분량의 30% 이상 되는 독립영화
 - 지원 규모 : 독립 장편영화 2편(최대 8천만 원), 단편 8편(최대 7백만 원)
 - 선정 결과 : 총 10편, 장편 <언니 유정>외 1편, 단편 <정아의 집>외 7편
 - 전년 대비 변동사항 : 단편 지원 수 확대, 성남지역 영화 분야 신설
 - 예산액 : 213백만 원(시비)
- 성과
 - 2014년~2021년 총 36편의 독립영화 제작 지원 (장편 19편, 단편 17편)
 - <벌새(2016)>, <살아남은 아이(2017)>, <찬실이는 복도 많지(2018)> 등 국내외 영화제 다수 수상
 - 2022년 공모 접수 : 총 151편(장편 58, 단편 93) 접수 (2022. 1. 27. ~ 2. 22.)
 - * 심사 : 연출, 프로듀서, 학계/비평 등 전문가 구성 (3월 ~ 4. 19.)
 - * 총 10편 선정, 1차 지원금(70%) 지급 완료, 영화 제작 중
- 사업 진행 현안 및 대책
 - 현안 : 지역참여 저조 및 지역의 역량 부족
 - * 2022년 단편영화 성남 분야를 신설, 지원 작품 수 현저히 적음(20% 수준)
 - * 작품성 및 제작역량도 부족
 - 지역참여 활성화 : 성남 영화인 육성 및 역량 강화
 - ① 제작 지원 멘토링 시스템
 - ② 성남 영화 기획개발지원
 - ③ 영화 아카데미 개설 고려

4) 미디어센터 운영 과제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장비 및 공간 운영 체계 재정비

(1) 목표

성남미디어센터 교육, 네트워크, 상영 등 미디어 기반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된 장비와 공간 운영시스템 조성 및 유지

(2) 주요 공간 및 면적

- 1층 : 소리스튜디오(9평), 다목적스튜디오(33평), 디지털교육실1(16평), 갤러리(9평), 장비보관실(9평), 영상변환 공간(3평)
- 2층 : 일반강의실(15평), 디지털교육실2(12평), 미디어공방(6평), 작은영화관(12평), 동아리방1, 2(6평), 미디어도서관(5평)
- 3층 : 미디어홀(48평)

(3) 미디어 장비 현황

- 촬영, 조명, 음향 장비 61종 139대

(4) 향후 계획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총괄계획수립을 통한 순차 행정 추진체계 마련
- 빠른 장비시스템 구입 및 사업지원,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 유지
-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의 이용과 방문 여건을 조성
- 공간 및 장비 사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완결되도록 개선
- 정회원 수를 확대 대책 마련

■ 성남미디어센터 10년을 전망하며

1. 외부 환경 변화

(1) 미디어 환경의 변화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 성남미디어센터 건립 초기 사진과 영상 중심의 대중적 보급과 체험에서 현재는 고도화되는 스마트폰 활용(영상, 영화, 정보, 상업과 금융 등 전 분야로 확대)
- AR·VR, 메타버스 등 뉴미디어 시대 도래

(2) 대중의 욕구와 취향 변화 : 미디어가 취미에서 돈이 되는 시대

(3) 정책 변화

- 시민에 대한 미디어 보급 확대
- 전문적 영역으로의 차별화, 공공성과 상업성, 개인의 만족과 지역사회의 공헌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
- 미디어의 부작용 문제 : 정보의 독점과 악용, 가짜뉴스, 범죄의 수단, 사생활 침해 등
- 민선 8기 공약사업
 - * 시민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 * 성남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시 스마트도시과)

(4) SWOT 분석

내부능력 외부환경		S (강점)	W (약점)
		· 10년의 경험과 노하우 · 재단 직영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 ·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확보	· 시설, 장비의 노후화 · 사업의 고착화와 매너리즘
O (기회)	·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확대 · 민선 8기 뉴미디어 정책 관심 · 10주년 맞이 변화의 바람 · 타 지역 미디어센터 건립 붐	SO 전략	WO 전략
		· 성남시 미디어 거점 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 정립 · 타 지역 미디어센터와의 정책 및 사업 연계	· 새로운 미디어장비 구축 · 신규문화공간 조성 시 미디어 콘텐츠 연계
T (위협)	·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과 문화센터 등에서 미디어교육 진행 · 재단 내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통합 및 연계 필요성	ST 전략	WT 전략
		· 전문성 있는 특화된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 지원사업 확대 및 위탁교육 강화	· 미디어 강좌 및 사업의 차별화와 역할 분담 · 성남미디어센터만의 브랜드 강좌와 사업 개발

2. 성남 미디어센터 내부 과제

(1) 미디어센터의 역할 재정립

- 공공성과 상업성, 경제성 조율 : 강좌 수입, 대관 및 장비 대여 수입
- 미디어 소외계층(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및 자녀 등) 대상 사업 확대
- 시민사회 미디어 단체가 주체가 되도록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2) 직원의 전문성 제고

-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교육 및 직무 지원

(3) 시설과 장비의 재정비

- 노후 장비 교체와 활용, 최신 장비 구축(구입과 임대)
- 트렌드에 맞는 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공간과 시스템 구축

(4) 미디어콘텐츠 개발 및 강사 육성과 확보

- 인기 있는 강좌와 강사 발굴 및 육성
- 새로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진 섭외

(5) 차별성과 독자성 확보

- 타 기관 및 단체의 미디어 관련 강좌 및 프로그램 비교
- 성남미디어센터만의 강좌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6)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지원

- 시 본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국비 및 도비 공모 지원사업 추진

(7) 미디어센터와 지역 미디어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 수립(*필요 시 용역 발주)
- 시 또는 재단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8) 고유 브랜드 개발

- 독립영화제작 지원, 어린이영화아카데미(SNEFS), 청년영화기획단과 다시영화제, 야외영화상영과 시민영화제

(9)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

- 강좌, 강사, 행사 등 정보 검색, 수강 신청, 예매가 가능한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이용자 확대와 만족도 반영

(10) 지역의 거점 공간 발굴 및 조성 지원

- 마을공동체공간 또는 유희공간에 미디어 관련 시스템과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역주민들이 자립, 자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운영 지원

(11) 미디어센터 사업 전략과 정책 수립, 관련 기관 및 단체 연계 업무

- 재단 내 문화정책팀과 기획정책팀, 성남시 문화예술과의 관계
 - 시 정책과 조례를 통한 지속성과 확대
- 성남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와 미디어 전문가와의 정책 연계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3. 성남미디어센터 사업 리뉴얼 방향

(1) 리뉴얼 목적과 방향

- 사회변화와 기술변화를 주도하고
- 시민/공동체의 성장을 촉진하며
- 우리가 만들어 온 생태계 속에서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 늦지 않게 우리 스스로 혁신(革新)하기!

(2) 가치와 효과의 갱신

- 미디어에 ‘참여’ → 미디어의 ‘소유’
- 퍼블릭 액세스 → 공동체 미디어
- 참여를 통한 즐거움 → 문제해결을 통한 효능감

(3) 사업영역의 확장과 심화

- ‘시민력’과 ‘시민기술’, ‘시민의 미디어 역량과 시민의 미디어 기술’
 -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의 역량
 -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용한 시민이 가져야 할 기술
 -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고, 스스로 생산하여 유통-소통

(4) 연계하고 참여하는 시대에 필요한 시민기술과 시민력 배양

- 시민미디어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 수립
 - 성남시민 공동체의 미디어플랜 수립
 - 현황 및 성과지표 수립 → 현황조사 및 분석 → 과제설정과 해결 → 환류와 혁신
 - 조사 연구를 위한 예산 수립

(5) 거버넌스의 혁신

- ① 의견수렴에서 결정 권한 부여로
 - 운영위원회 재구성 및 관련 규정 정비
 - 성남시민미디어네트워크의 권한 설정 및 규정 정비
- ② 민간주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연차가 늘어 갈수록 이용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주체로 성장
 - 최대한 주민들이 권한을 가지는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시도와 공유 필요

(6) 자원 확보와 제도의 전환

- ① 자원의 확보와 배분에서 확보 지원과 공유로
 - 마을미디어 성과와 과제를 통해 주민 스스로 시 정책에 참여하고, 사업예산을 직접 확보하여 진행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Value)과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통한 기업 연계 및 후원과 협력 사업 추진
- ② 제도 정비
 - 성남문화재단(성남미디어센터) : 운영 규정 및 세칙에 반영
 - 성남시/성남시의회 : 마을미디어 지원조례 보완 등

<세션 3>
지역과 예술가

성남시 지역문화예술생태계와
문화예술교육가의 역할

윤용훈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STAN:D) 대표

■ 성남시 지역문화예술생태계와 문화예술교육가의 역할

협력과 협치 그리고 연대

최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꼭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잔소리처럼 들려 자발성을 잃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협력은 힘을 합쳐서 서로 돕는다는 따뜻한 감정적 표현인 반면 협치는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조금은 차갑고 이성적인 표현이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것도 신기한데 아마도 문화예술교육이란 것이 행정적 관점에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2018년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분권의 확대는 문화예술교육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예산이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다. 큰 예산이 기초지자체로 내려올 때 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운영의 독립성과 지역기반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설렘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중앙의 관여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와 영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 관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그 무게감은 중앙을 통한 하달식 행정에 익숙하던 기관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주체들과 협력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예술교육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그러한 협력과 협치에 목마른 것은 기관이지 우리가 아니다. 2006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처음 학교예술강사라는 직업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여러 어려움에도 잡초처럼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살아남은 것이 우리다. 그래서 최근 갑자기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 행정기관의 시선이 편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협력과 협치의 태도가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다는 점, 이제 막 지역을 거점으로 예술교육을 시작하는 신규예술교육가들에게 더 넓은 방식의 예술교육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점, 또 기존 강사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스며든 예술교육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협력과 협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예술교육가들의 연대를 통한 완전히 독립된 주체로서의 수평적 협력이 필요하다.

성남을 거점으로 하는 예술교육가들의 네트워크인 스탠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도 이러한 연대의 필요성에서라고 생각된다. 스탠드라는 새는 한쪽에는 연대, 반대쪽에는 협력이란 날개를 달고 이제 막 하늘을 비행하기 시작했다. 협력보다 연대를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협력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다. 진정한 협력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협력은 수평적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독립된 주체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교육가들의 연대를 통한 독립적 주체 확립이 우선인 것이다. 물론 스탠드의 출발점에 있어 기관의 협력이 있었음에 대해 미심쩍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합리적 의심이고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과

정을 통해서만 스탠드가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기존 생태계의 여러 문제를 상상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하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 예술교육가들끼리 함께 연대하며 우리를 지탱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헤어질 결심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예술교육가들과 기관 등 다른 주체들 사이의 수평적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대를 통한 독립까지는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표성을 갖게 될 것인가? 그 대표성이란 것이 회원수에 의한 것인가? 쉽지 않은 것이고 의심하면 끝도 없이 빠져드는 블랙홀과 같은 질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다큐멘터리를 사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영상이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편집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큐멘터리는 끊임없이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탠드의 대표성 또한 명명되어 지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향후에는 누구라도 당연하게 스탠드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서 더디지만 지치지 않는 우리의 결의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모난 프레임을 통해 스토리를 경험하는 영화는 감독을 중심으로 한 연출부와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한 제작부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의 예술성과 흥행이란 공동의 목표로 구성된 이 팀은 프레임의 안과 밖으로 영역을 나누어 책임과 역할을 구분한다. 연출부는 스토리와 관련된 영역을, 제작부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지만 스토리와 환경, 모두 다 예산이란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책임을 나누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과 협치의 지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영화는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는 스스로를 예술강사에서 예술교육가로 명명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듯하지만 앞의 이름이 시간강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태도와 율의 느낌을 강하게 반영한다면, 예술교육가는 강의실 밖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적 감수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또한 아카이브하는 예술교육의 주체적, 능동적 위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재단에 우리의 호칭을 예술교육가로 통일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는 예술가로서의 측면과 교육가로서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만큼 예술적 감수성과 자존감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실 처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사로 인상보다 우리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한다. 그 존중은 예술교육가가 기관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만만가지 일 것이다. 결국 협력은 이러한 이해의 조건 속에서 서로 잘하는 것을 책임지고 맡으며, 돌출된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대화는 서로의 존중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협력과 협치는 결국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

세 번째, 협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간담회, 토론회, 포럼 등등을 통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수많은 소통의 시간이 있었으나 진정한 공감의 시간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파트너로서 우리를 받아들인다면 지자체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 및 의사 결정 체계를 위한 협의체에 예술교육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존재해 왔다는 지역의 예술교육협의체는 누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번째, 협력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며, 또한 투명해야 한다.

당위와 명분을 위한 협력은 모두를 힘겹게 하며 지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목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투명성 역시 필요하다. 그러한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느냐가 협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할 것이다. 전체 그림은 없이 일부 조각들, 일부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게 된다면 모든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공유해주길 바란다. 예산이 없었던가 인력이 없었던가, 혹은 위에서 반대한다든가 서로의 패를 모두 보여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섯 번째, 협력의 지속성과 연결되어 있음에 관하여

예술교육가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수행을 거치면 사업종료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 후속작업 없이 한 번의 사업으로 끝이다. 그러나 지역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경우 사업이 종료되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특수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은 성장을 하기 위한 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예산과 인력 같은 문제는 핑계로 들릴 뿐이다. 협력을 위한 지속과 연결은 특히 지역거점의 예술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여섯 번째, 예술교육가와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연구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우리도 예술교육의 협력자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각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예술교육가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요구한다면 모순된 일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투명 유리벽에 관하여

우리와 기관 사이에는 투명 유리 벽이 있다. 우리는 투명 벽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며 내가 본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벽을 통과하며 실은 무수한 왜곡이 일어난다. [안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독립영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의 왜곡된 프레임, 즉 투명 벽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벽은 물이해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왜곡된 믿음이다.

나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협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 좋은 사람들 중에는 예술교육가, 재단, 기관, 학교, 그리고 참여자들이 있다. 조금 더 단단한 협력과 협치가 강조되는 지금 이 시점, 투명 유리벽을 허물고 좀 더 따뜻한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끝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좋은 생태계란 무엇일까? 생태계는 약육강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들까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지역 예술교육의 동지로서 앞으로 있을 설레는 만남을 상상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지역과 예술가> 토론 1

박성진 예술교육가(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

협치, 협력, 연대

- 각자에서 우리가 되기 위한 길고 지루한 여정-

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STAN:)D스탠드 소개글은 늘 이렇게 시작한다.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지역 현장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교육가(Teaching Artist, TA)들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돌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2021년 6월부터 성남꿈꾸는예술터에서는 <성남예술교육가 네트워크(이하 스탠드)> 상상하고 준비하는 정기적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금 보니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길고 지루한 준비모임의 여정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적 흐름에서 출발한 모임이라니! 시간을 되돌린다면 2021년 6월의 나에게 묻고 싶다. 내가 예술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흐름이 내 결정에 영향을 끼친 적이 과연 있었느냐고. 나는 나의 예술철학과 예술교육관에 따라서 딱딱뚱뚱 내 길을 걸어갔고, 내가 가는 길에 때때로 길 잃은 정책이 흘러들어와 짧은 동행을 해왔던 것 아니냐고. 앞서 윤용훈 선생님의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협력과 협치에 목마른 것은 기관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으며, 그제야 나도 솔직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 같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협치 이전에 협력, 그 이전에 연대에 대해서 말이다.

예술교육가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와 내 주변의 예술교육가들은 공모사업에 자주 참여한다. 공모안을 살피고 키워드를 분석하여 나의 기획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수록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경쟁의 논리가 우리, 예술교육가들 안에서도 명백히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이다. (누가 우리를 경쟁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하지 않겠다.)

나 역시도 단체로서 공모사업을 참여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2013년 처음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그 후 몇 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다가 2017년 처음으로 떨어졌다. 성남의 한 신생 단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이기에, 성남에서 2개 단체를 선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이 지역특성화 사업과 어느새 갈라졌음을 인정했고, 그 일을 분기점으로 또 다른 사업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지역특성화 사업이 잊혀져 가던 그해 여름, 그 신생 단체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우리도 익히 경험했

던 사업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 전년도 참여팀을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들 아래에 적힌 한 문장이 지금도 생생하다. “연대가 힘입니다.” 라는 한 줄의 문장은 나를 움직여 한여름의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태평동의 언덕길을 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적으니 꽤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생길 것 같지만, 그 후로 우리 단체와 그 단체 사이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 우리는 한 번도 사업의 파트너인 적이 없었고, 그저 연대했을 뿐이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언젠가 협력할 일이 생기면 협력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10년이 넘게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니 그런 식으로 느슨하게 연결되는 주체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당장 눈앞의 사업을 위해서 계약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예술교육 현장에서 서로가 가진 가치를 응원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협력할 수 있는 동료들 말이다. 물론 그 수는 극히 적다. 양손으로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 나의 경험을 돌아보니 앞서 말했던 스탠드의 준비모임,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준비모임은 사실은 연대를 위해서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왜 그렇게 조금했을까. 아마도 정책의 요구를 내 내면의 요구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이처럼 짧고 조금한 여정 속에서도 스탠드는 창립총회를 거쳤고, 스무 명의 회원들이 가입신청서와 입회비를 내고 정회원 승인 절차를 거쳤다. 그중에는 거의 매번 모임에 참석하지만 침묵만 지키고 가는 분도 있고, 거의 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가입한 분도 있었다. 나는 그분들의 의중이 궁금했고, 마침 좋은 기회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각자도생하며 지내오던 그분들이 스탠드에 가입한 이유는 연대의 힘이 필요해서였다. 그리고 그분들이 스탠드 준비모임의 길고 지루한 시간, 혹은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을 함께 견디는 우리들의 모습 덕분이었다. 지치지 않고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들, 끈질기게 매달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사람들,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스탠드가 추구하는 연대라는 가치는 추상적이고 당장은 와닿지 않지만, 그것을 말하는 우리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매달 반복되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무튼’ 스탠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결국 연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상호 신뢰, 지속성, 진정성,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정책의 흐름에 따른 협력과 협치가 지닌 가치는 현장의 예술교육가들에게는 아직은 멀고 당장은 와닿지 않는다. 게다가 예술교육가들은 정책에 대한 오래된 불신이 쌓여있는 경우도 많다. 협력을 보여주기 위해 동원되었던 경험, 말해도 바뀌지 않았던 경험, 연결된 줄 알았으나 단절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다. (물론 정책 실무자들도 예술교육가들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은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는 결국 반복되고 축적되는 만남과 대화에서 획득할 수 있다. 적어도 성남예술교육가들의 2년에 걸친 연대의 경험으로는, 지루하고 긴 시간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예술교육가와 재단을 포함한 주체들의 정례화된 만남과 대화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참 길게도 늘어놓았다. 그만큼 간절하다.

<지역과 문화정책> 토론 2

서혜운 | 예술교육가(성남예술교육가네트워크)

수평적 협력을 위한 우리의 변화

지방 이양 일괄법의 실행으로 인하여 각 지방의 문화재단은 예술교육가들과의 협력과 공존을 위하여 바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오늘과 같은 정책포럼, 계획수립 토론회 등과 같은 형식에서 행정가들과 예술교육가들의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일회적인 행사, 보여주기식 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정성 있는 만남의 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다들 공감하시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술가로 출발한 저희는 예술교육가가 되었고, 이제는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에 다양한 역할과 방법으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관으로서는 이 변화가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합니다. 부담스럽거나 번거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문화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일 테고, 그렇다고 제대로 지역의 문화재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행 설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사료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싶은 것은 예술교육가로서, 행정가로서 각자의 직업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을의 태도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서 주체 의식을 갖자.

우리 예술교육가는 재단의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재단의 직원이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떼에서 공모가 올라와야 지원할 수 있고, 수십 장의 기획서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야 겨우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요인에게 나의 생계, 일에 대한 결정권을 위탁해왔습니다. 대다수 예술교육가가 수동적이고 을의 태도가 습관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교육가 선생님들을 만나면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서로 토로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남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자로서 예술교육가는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개인의 마음을 털어놓는 한 번의 수다와 공감으로 끝나는 개인적인 성토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협력의 주체에게 적극적으로 하고, 대안을 고민하여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열정적인, 혹은 적극적인 누군가가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저한테 스스로 하는 소리였습니다.

갑의 태도에 머물러 있으면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

성남문화재단의 강사계약서를 보면 협의 주체의 명칭이 재단과 강사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갑과 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명칭이 바뀌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식이 바뀔 차례입니다. 최근에 제가 서명한 성남문화재단의 계약서를 보면, 제5조 강사의 의무에 재단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강사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 6조와 7조에 강사의 동의 없이 즉시 해임한다는 내용이 두 번 나오고, 이와 별개로 재단에서 강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 항목들을 봤을 때 명칭이 갑과 을에서 재단과 강사로 변경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상호협의하에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은 천재지변, 국가 전염병 재난, 그 외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강사의 책임과 배상을 필요로 하는 항목과 더불어 강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총 5번이 나오는데, 재단이 책임지는 것은 강사비 입금 외에는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석 달 전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꿈꾸는예술터” 정규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 당일에 가고 있는데 담당 행정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참여자의 절반이 일행이었는데 당일 새벽에 다 같이 수업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계절은 6월이었고 아마도 놀러 가기 너무 좋은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담당 행정가는 저에게 사과했지만, 이는 행정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가가 당일 아침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대로 수업 장소에 갔다면? 저는 어떻게 하루를 버텨을까요?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의 이 원망하는 마음은 어디로 향한 것일지, 당일 취소하는 일행 때문에 덩달아 수업을 듣지 못하는 참여자들에게 드는 불편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편해지는 것 일지, 왜 당일 취소가 가능한 것일지, 그럼 강사는 개인의 기분 변화에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과 시간에 대한 목줄을 의탁해야만 하는 것인지... 등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단이 강사를 믿지 못해서 재단을 지키려는 항목을 계약서에 넣었고, 강사들은 재단을 믿고 계약하지만 강사 자신들을 지킬 수 없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주체들은 갑을 관계가 아니기에 공동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가 짊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수평적인 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지금 우리는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가 있고, 의논하고 싶은 논의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전적인 관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대표성을 생각해보면 마냥 웃는 얼굴로 있으면 안 된다는 다소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일회적인 행사, 보여주기식 그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각자의 관점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에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바라보고 있는 같은 곳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관점을 서로 가감 없이 공유하고 설득하고 하나씩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지속해서 꾸준히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마다 조금씩 더 맞춰가며 발전적인 발걸음으로 내딛기 위해서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려 합니다. 네, 이것도 저 자신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수평적인 협력의 성공적인 첫 음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칩니다.

2022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포럼

문화정책 환경변화와 지역의 대응

발 행 일 2022년 12월 7일

발 행 처 (재)성남문화재단

기 획 문화사업본부

홈페이지 www.snart.or.kr
